

고마운 기증자님께

·글 수혜자 김 동 현 님

안녕하세요?

저는 기증자님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환자의 아내입니다.

“감사합니다!”

어떤 말로, 어떤 표현으로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?

제 남편은 33세로, 만 3살, 4살의 두 딸아이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.

3년전, 둘째 아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 처음 발병하였고 이후, 치료를 받으며 경과가 좋아 회사에도 복귀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, 이번에 재발하게 되었습니다.

처음에는 재발이라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고, 이미 3년 전에 형제들의 조혈모세포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터라,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너무 컸습니다.

무엇보다 어린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.

그런 저희 가정에 기증자님의 소식은 큰 희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.

정말로 소중한고 큰 선물이었습니다.

이런 결단을 내리시기까지 어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

어려운 결정, 하지만 정말 소중한고 귀한 결심을 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
기증자님의 그 결단은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,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한 가정을 살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.

어린 두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주셨고, 그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사는 소박한 행복을 바라는 저의 꿈도 지켜주셨습니다.

또한, 가슴 아프게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꿔주셨지요.

감사합니다.

귀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고마운 분께

·글 수혜자 김성록 님

기증자님! 안녕하세요?

기증하신 후 건강은 괜찮으신지 인사가 늦었습니다.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이식기간 동안 힘들어 하는 아이를 돌보느라 가족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.

한 달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오니 벌써 10월이네요. 날씨가 참 좋습니다. 최근 3년 동안은 바깥 날씨가 좋으면 참 슬뻐답니다. 공하나 들고 공원에 가면 땀 뻘뻘 흘리며 정말 잘 노는 아이인데,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집안에서만 생활하니 그것을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. 하지만 이젠 늦어도 내년 이맘때는 다시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어 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며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.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증자님과 기증에 동의해 주신 기증자님의 가족 덕택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

기증자님이 저희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단 저희 가정뿐 아니라 친구, 외가, 이모, 고모 등 참으로 많은 친척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모든 친척들이 기뻐하며 기증자님께 감사드리고 기증자님과 가족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기증자께서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아마도 커서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.

항상 기증자님께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. 기증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정말 감사드립니다.

- 수혜자 엄마가 -

제2의 삶, 다시 찾은 행복

·글_수혜자_나 형석_님

안녕하세요!

지난 2005년 조혈모세포를 기증 받은 사람입니다. 벌써 제가 이식 받은지 2년이 넘었네요.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말까지 다니던 회사에 복직해서 근무하다가 2007년 12월말까지 재차 휴직중입니다. 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반응으로 조금 고생은 하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제2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. 그동안 숙주 반응도 문제였지만 급격히 떨어진 체력으로 많은 것이 힘들었지요. 지금은 체력도 좋아져서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으며 조금씩 운동도 하고 있답니다.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폐기능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예요. 점점 욕심이 커집니다.

제겐 4살과 6살의 딸아이가 있습니다. 둘째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백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요. 수년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가끔 아이들을 보며 “내가 이식을 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 없다면?”이란 생각을 해보면 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살 아이들 모습에 마음 아파지곤 하지요.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생활하게 된답니다.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사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.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공여자님 기증해 주신 후 건강은 어떠신지요?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염려는 됩니다. 부디 건강하시고 매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. 공여자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2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강하게 살겠습니다.